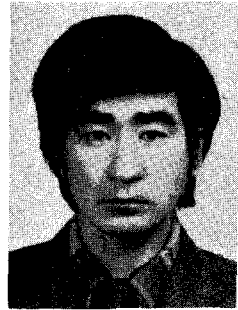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김 영 상
(한일농원 기획부)

새해 아침이면 누구나 소망을 갖는다. 그 소망은 크든지 작든지 사람에게 따라 모두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부유함을 또 다른 이는 건강을 또 어떤 이는 입신출세를 바랄지 모르겠다.

우리 양계인들도 나름대로 바라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바라는 바도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바람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소망에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하며 노력없는 소망은 공상이요 백일몽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의 양계업제는 그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이만큼 발전해 왔다.

이에 대해 외형적인 발전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도 많다.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며 또 이 발전이 실질적인 기반이 없이 호황의 바람을 타고 성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그만 시련에도 우리 양계업제는 허둥지둥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양계업제는 사료자원을 완전히 도입곡물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의 경우 식량의 무기화 또는 더욱 급박한 사태의 반발로 말미암아 사료곡물의 도입이 불가능 해진다면 우리의 양계업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30~40년 전의 양계업의 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계업제는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인상 또는 원유가 인상으로 인한 수송비 상승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당장에 해결되지도 않는 것이며 또 외적요인이므로 차치하고라도 우리 양계인들은 그간 몇 차례의 혹독한 불황을 겪으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던 말인가. 그저 막연히 경기가 풀리기를 또는 동업자가 도산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았을까.

크게 보아 우리 양계업제의 당면과제는 생산성 향상과 양계산물 가격의 안정화라고 생각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및 시설의 혁신, 질병퇴치, 사료 초생추 약품 등의 품질보증이 선결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전문 서적을 연구는 못할 망정 양계잡지라도 성의껏 읽는 이는 몇이나 될 것이며 세미나에 참석하는 자세도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 안면이나 넓히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닭을 기르는 것이 생업이다. 닭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닭이 편안하고 잘 자라도록 해 주는 것이다. 수개월 동안 호경기가 지속되면 공돈 줏는 것처럼 자가용 승용차 구입에만 열을 올렸지 계사를 개선하고 기계력을 도입하여 자동화를 꾀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사료도 약품도, 추생추도 외상구입 만이 유익하고 경영의 합리화로 생각하는 풍조가 이들 관련업체의 자금회전을 어렵게 하고 따라서 품질저하로 치달는 것 같다. 앞으로 외상거래는 지양하

고 정상적 상거래를 해야 할 것이며 그래도 부당 이득을 노려 저질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사양 가들이 단결하여 응징해야 할 것이다.

질병퇴치에도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았을까? 비근한 예로 지난 해에 유난히도 기승을 부린 ILT는 처음에는 강화지역에서 발생하더니 곧 대구로 불이 옮겨 붙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강화지역의 감염계가 상인에 의해 대구에서 판매되었다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질병을 혼자 막기는 힘든 것이며 질병의 피해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다. 질병에 걸린 닭을 무책임하게 판매하는 것은 동료 양계업자의 목에 칼을 찌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양계산물의 가격안정, 참으로 시급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생산과잉 방지, 유통구조개선, 소비확대 홍보, 육류수입 차단 등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안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양계업은 농업의 한 분야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업으로 전락될 수는 없다.

이 일확천금 주의가 생산과잉을 조장한다.

양계산물의 가격이 오르면 점점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출하를 기피하다가 결국에는 소비위축을 조장하고 또 점점 더 많은 입추로 말미암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체화된 물량을 비축할 냉동시설도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우리들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든가 또는 주식을 모아 해결할 생각은 하지않았다. 유통구조의 개선도 상인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 그들도 악착같이 벌어들였다는 상흔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판매조합도 만들고 시세가 하락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제란이나 닭고기가 콩나물 보다도 값이 싸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소비확대 홍보활동도 겸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현재도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이제 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한 때는 난분까지도 수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차단시키지 못했다.

정부시책이니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막지는 못할지라도 막기 위한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 프랑스의 성난 어부들이 정부의 환선어 수입에 대항하여 파리가에 생선 20트럭을 뿌리고 다녀 청소부들이곤욕을 치렀다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다. 자기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이 어부들에게 갈채 보내는 바이다.

물론 우리와는 환경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극한적 투쟁이 아니라도 투쟁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압력단체를 결성해서 건의할 수도 있고 신문의 독자란에 기고하고 만나는 친지들에게 이의 부당함을 주지시켜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이 미흡했다.

우리의 양계업은 전통이 빈약하다. 우리는 양계업에 대해 사랑이 모자란다. 몇 탕 잘 해먹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양계업을 자손에게 물려 주겠다는 긍지를 갖은 이들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축산을 전공한 학식있는 이들도 절대로 자식에게는 양계를, 축산을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을 굳히는 이들도 있다. 전통이란 자손에서 자손으로 면면하게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이 끊어지면 전통도 끊어지는 것이다. 전통이 없는 집단은 긍지를 갖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위협을 느낀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흔히 말한다. 나는 한민족의, 국가의 체력은 동물성식품 소비량이 대변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불행히도 분단된 조그만 국토에서 힘들게 살고 있으나 언젠가는 우리의 자손이 옛날 조상들의 그 찬란한 융성함을 되찾아 주길 기대하며 우리와 자손을 더욱 강하게 길러 내야 할 책임을 갖은 사람들이다. 83년 이 한 해 우리는 긍지를 갖고 우리의

양계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망을 갖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야 할 해이다. 나 자신 기독교도는 아니지만 옛 성현의 말씀을 한 귀절 인용하며 끝맺으려 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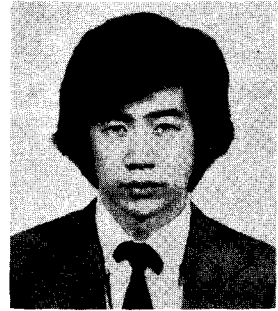
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 : 8)

시대에 부응하는 양계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

하 재 봉

(한국바이오텔화학(주) 학술부, 수의사)



해가 바뀌었다고 한다.

지난 해는 계획대비 실적이 어쩔고, 1983년 계획년 새해는 작년에 비해 얼마정도를 신장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온 업계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작년 양계업계는 어떠했는가?

우선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그 지긋지긋했던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의 강타로 인한 적극적인 극심한 피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82년 벽두에서부터 고질적인 양계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양계인들에게 달려들은 ILT는 폭풍처럼 온 양계장을 휩쓸고 지나갔고 곳곳마다 우리 양계장만은...’하는 마음으로 소독에 여념이 없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방역 관리의 헛점이 이때만큼 뼈저리게 느껴진 적도에 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소홀함이기도 했다. 국제간의 교역도 원활해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외래성 질병이 많아질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나름대로의 방역대책의 수립에는 미처 신

경을 쓰지 못한 결과였다. 일단은 고비를 넘긴 듯도 하지만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며, 발생 상재지역이 될 우려가 있는 곳도 많이 있으므로 방역관리는 ILT는 물론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또다른 외래성 질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양계산업의 필수요건으로 확고히 그 자리를 굳혀야만 한다.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다.

작년도에 그와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육계 같은 경우 소비량이 신장세를 보인 것은 이제 경제성장에 따른 점진적인 식생활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아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꾸준한 소비촉진의 홍보활동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변화되기 힘든 국민의 육류기호성도 많이 전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향후 1, 2년간의 소비도 문제지만 장기간에 걸친 닭고기나 계란 등 양계산물에 대한 국민기호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계몽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백분 감안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